

2026 박종철시민학교 · 4강

혐오와 조롱의 시대,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

박래군

인권운동가 · 4.16재단 운영위원장 · 박종철기념사업회 이사

"박종철이 숨진 그 곳에서, 오늘의 민주주의를 묻습니다"

2026. 7. 7 | 민주화운동기념관 (옛 남영동 대공분실)



2026년 5월, '탱크데이'

5. 18.

5·18 46주년 기념일, 스타벅스가 '탱크데이' 텀블러 행사 진행. "책상에 탁!" 문구 — 계엄군 탱크와 박종철 고문치사("탁 치니 억")를 동시에 연상시킨다는 비판 확산.

5. 20.~26.

대통령·정부의 강도 높은 비판.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해임, 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, 전 직원 역사 교육. 4단계 결재에서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음이 드러남.

이후

극우 진영의 '구매 인증' 역결집 — 조롱이 하나의 정치적 정체성 표현이 됨. 불매와 '멸공커피' 인증이 광장처럼 맞섬.

—208억 원

6월 카드 결제액 (전월 대비)

—113만 명

6월 앱 월간 사용자

출처: 아이지이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(2026. 7.)

이것은 한 기업의 '실수'인가, 우리 사회의 '징후'인가?

처음이 아니다 — 반복되는 패턴

2014

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장 앞 '폭식 조롱' — 애도 자체를 공격의 표적으로 삼음.

상시

5·18 왜곡의 일상화 — '북한군 개입설' 등 가짜뉴스와 망언의 반복.

2022~

이태원 참사 희화화와 2차 가해 — 온라인 밈으로 소비되는 죽음.

2026. 5.

스타벅스 '탱크데이' — 조롱이 기업 마케팅의 언어로까지 스며듦.

2026. 6.

배재고 야구부, 광주제일고전에서 "스타벅스 가야지" "탱크데이" 응원 — 한 달 만에 10대의 놀이로 재생산. 학교 앞에는 이를 두둔하는 '응원 화환' 행렬까지.

개별 일탈이 아니라 '패턴'이다. 패턴에는 구조가 있다 — 오늘의 질문: 그 구조는 무엇인가.

1987 — 지금 조롱받는 것은 이 역사다

- 1. 14. 서울대생 박종철,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치사. “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”는 거짓 발표.
- 5. 18.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, 고문치사 은폐·조작 폭로.
- 6. 9. 연세대 이한열, 교문 앞 시위 중 최루탄 피격.
- 6. 10. 6월 민주항쟁 — 전국에서 “독재 타도, 민주 쟁취”.
- 6. 29. 직선제 개헌 수용. 7~9월 노동자대투쟁, 1,300여 민주노조.
- 12. 16. 16년 만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. 87년 체제의 출발.

한 사람의 죽음

- 진실의 폭로
- 시민의 항쟁
- 헌법의 탄생

‘탁 치니 억’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은, 이 서사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이다.

민주화 이후 — 반복해서 열린 광장



광장은 반복해서 열렸다 — 그리고 매번, 문제는 '광장 이후'였다.

광장 이후 — 최소주의 민주주의

“박근혜가 탄핵되면,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까?”

— 촛불광장에 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물음

김종철

제비뽑기 민주주의 · 시민의회 — 대의제를 넘어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 상상

최장집

정당정치의 강화 — 광장의 에너지를 책임 있는 정당 체제로 수렴해야

그러나 현실은 ‘마지노 민주주의’, **최소주의 민주주의(조형근)** — 선거와 탄핵으로 최악을 막는 데서 멈추는 민주주의.

시민들은 언제까지 여기에 만족할까?

빛의 광장은 무엇을 요구했는가

“추운 겨울 광장을 지킨 청년들은 민주주의를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. 스스로 지키고 다시 세워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.”

— 이재정

광장의 1·2위 요구는 ‘평등’과 ‘참여’ — 혐오가 공격하는 바로 그 가치다.

미국 — 조직된 반민주주의 ‘운동’

돈 · 거짓말 · 신

미국의 반민주주의 흐름은 우발적 현상이 아니다. 막대한 자금과 정교한 조직이 떠받치는 하나의 거대한 ‘운동’이다.

각자의 역할이 분업화되어 있다 — 돈을 대는 자, 논리를 만드는 자, 조직하는 자, 퍼뜨리는 자, 권력으로 집행하는 자.

Power Players · 권력 행위자
정치인 · 법조 · 미디어

Funders · 자금 제공자
재단 · 억만장자

Thinkers · 사상가
싱크탱크 · 이데올로그

Sergeants · 하사관
조직가 · 캠페인 지휘

Infantry · 보병
온라인 · 거리의 대중

한국 — 조롱은 공짜가 아니다

수익 모델

혐오·조롱 콘텐츠의 시장 — 슈퍼챗, 후원, 조회수. 자극이 곧 수입이 되는 구조에서 조롱은 '사업'이다.

정치적 동원

혐오 이슈의 정치 상품화 — '탱크데이' 옹호가 정치 구호('커피 한 잔의 자유')로 번역되는 순간.

확산 회로

커뮤니티 밈 → SNS '구매 인증' → 오프라인 '응원 화환'.
배재고 교문 앞은 이 회로의 종착지였다.

일상 재생산

기업의 마케팅 언어가 한 달 만에 10대의 응원 구호로 —
조롱이 '놀이'로 학습되고 대물림된다.

한국의 Funder는 누구이고, Infantry는 누구인가 — 미국의 지도를 우리 현실에 겹쳐 보자.

조롱의 기능 — 왜 하필 희생자인가

1

애도의 차단

함께 슬퍼하는 순간 시민적 연대가 태어난다. 조롱은 애도 자체를 공격해 연대의 싹을 자른다. 세월호 농성장 앞 '폭식'이 그랬다.

2

시민 범주에서의 축출

피해자와 유가족을 '동료 시민'이 아닌 '저들'로 만든다. 범주 밖으로 밀려난 사람의 고통은 더 이상 '우리의 일'이 아니게 된다.

3

책임의 희석

국가폭력의 기억을 웃음거리로 만들면,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도 흐려진다. '탁치니 억'의 희화화는 고문의 기억 자체를 지운다.

박종철 · 5·18 · 세월호 · 이태원 — 대상은 달라도, 논리는 같다.

혐오가 자라는 토양

불평등의 심화

소득 격차에서 자산 격차로 — ‘K자 성장’. 좁아지는 사다리 앞에서 좌절은 아래를 향한 혐오로 번진다.

능력주의

경쟁과 효율만 남은 교육과 노동 — 탈락한 사람을 ‘잉여인간’으로 취급하는 사회.

각자도생

IMF 이후 내면화된 신자유주의 — 연대의 경험이 사라진 자리에 ‘남 탓’의 정치가 들어선다.

모욕의 제도화

위험의 외주화·이주화, 가난과 장애를 ‘입증하라’는 복지 — 제도가 먼저 사람을 모욕한다.

서로 다른 위험이 아니라 하나의 토양이다 — 존엄이 무너진 자리에서 혐오는 자란다.

토양의 가장 참혹한 단면

1위

OECD 노인 빈곤율 · 노인 자살률

40%

66세 이상 소득 빈곤율

214만

독거노인 가구 (2,138,000)

빈곤하고 고독하고 나이 많을수록, 더 우울하고 자살 성향이 높다. (2024년 보도 기준 통계 — 강연 시점 최신 수치로 갱신)

이것은 통계가 아니라, 방치된 존엄의 기록이다.

가장 약한 사람의 존엄이 무너질 때, 민주주의의 토대도 함께 무너진다.

인권의 언어는 왜 마지막 보루인가

헌법 제11조 ①

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누구든지 성별·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...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세계인권선언 제28조

모든 사람은 이 선언의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·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.

혐오는 밀어낸다 사람을 '시민'의 범주 밖으로 — '저들'은 조롱해도 되는 존재가 된다.

인권은 불러들인다 “그래도 사람이다” — 범주 밖으로 밀려난 사람을 다시 우리 안으로.

그래서 마지막 보루다 정치의 언어, 시장의 언어가 모두 오염되어도 끝까지 남는 방어선.

현장의 기억 — 용산에서, 팽목항에서, 남영동에서: 인권의 언어가 사람을 지켜낸 순간들 (증언)

혐오의 시대에 인권은 장식이 아니라 최후의 방어선이다.

87년의 교훈, 2027년의 상상

87년의 교훈

- 개헌은 '8인 회의' 밀실에서 — 항쟁의 주역과 정치 세력의 분리
- 노동자 배제 — 사회권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지 못함
- 이후에도 반복 — 광장을 제도정치가 배신하는 역사
- 귀결 — 최악만 막는 최소주의 민주주의

2027년, 새 헌법을 만든다면

- 사회권·젠더·돌봄·평등을 기본권으로
- 기후위기와 AI 시대의 새로운 권리
- 권력의 통제 — 다시는 계엄이 불가능하도록
- 그리고 이번에는, 광장이 헌법의 저자가 되도록

어떤 헌법을 만들 것인가 — 이것이 광장 '이후'를 결정한다.

광장에서 일상으로 —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

- 1 동조하지 않기** 조롱의 자리에서 웃지 않는 것 — 혐오의 '보병'이 되지 않는 가장 작은 실천.
- 2 애도의 자리에 함께 서기** 분향소에서, 추모의 광장에서 — 애도가 곧 연대의 시작이다.
- 3 기억의 장소를 찾기** 오늘, 바로 이 자리처럼 — 남영동은 고문의 공간에서 질문의 공간이 되었다.
- 4 일상의 공론장 만들기** 작은 토론 모임, 동네의 연대 —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.

민주주의는 광장과 투표일에만 있지 않다 — 혐오에 맞서는 일상의 습관 속에 있다.

숙 의 토 론

물 습 니 다

Q1

내가 목격한 혐오·조롱의 장면은 무엇이었나 — 그때 나는 무엇을 했고,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?

Q2

조롱하는 사람은 '나쁜 개인'인가, 구조의 '보병'인가 — 당신의 판단은?

Q3

2027년 새 헌법에 단 한 조항을 넣을 수 있다면, 무엇을 넣겠는가?

“박종철이 숨진 그 곳에서, 오늘의 민주주의를 묻습니다”